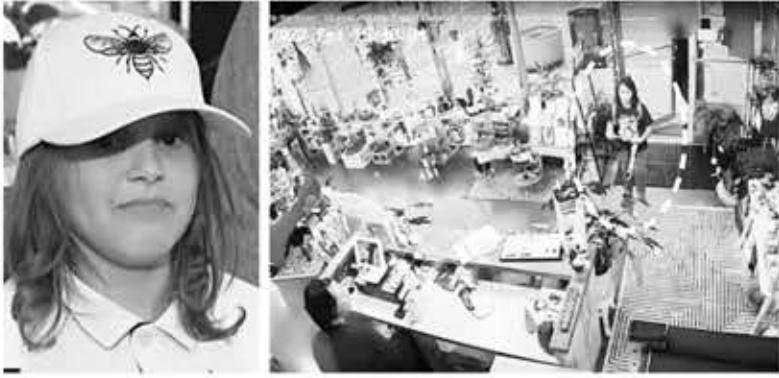


“엄마인 척해 주세요” ... 10살 소년의 기지



▲ 뛰어난 기지로 스스로를 위험에서 구한 새미 그린왼쪽과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사진=폭스뉴스 캡처

갈래? 편의점에서 뭐 사줄까?”라며 그린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여성을 수상하게 여긴 그린은 자주 가던 집 근처 가게인 ‘대니 비펑키(Dani Bee Funky)’로 들어섰다. 여성은 따라 들어오지 못 하고 가게 밖에서 머뭇거렸다. 그린은 곧장 카운터로 걸어가 점원에게 “엄마인 척해 주세요!”라고 속삭였다. 밖을 내다본 점원은 바로 문을 잠갔고 수상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황급히 떠났다.

10살 소년이 번뜩이는 기지로 유괴범에게서 벗어난 이야기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 1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열 살 초등학생 새미 그린은 최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수상한 여성을 만났다. 여성은 계속해서 그린을 따라오며 가족이 어딘는지 물었고 그린의 아빠를 안다며 ‘편의점에 갈 건데 같이

그린은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여성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몸이 떨릴 뻔했다.”고 말했다. 그린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는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그냥 번뜩 떠오른 생각이 었다.”라고 대답했다.

관련 경찰은 그린을 납치하려고 했던 여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그 여성이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만km 자전거 타고 카타르로 달려간 남성



▲ 아르헨티나에서 카타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간 실리오. 사진출처=clarin.com

월드컵 경기 관람을 위해 남미에서 카타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간 남자가 화제다.

아르헨티나의 공증전문 변호사 미겔 실리오(52)는 카타르 월드컵 관람을 위해 지난 5월 자전거에 올라 지난 12일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다.

남미에서 유럽, 유럽에서 카타르로 이어진 6개월 대장정 동안 실리오가 거친 국가는 20개국, 이동 거리는 자그마치 9,645km에 이른다. 특히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구간은 난코스였다. 실리오는 “17일 동안 사막으로 2,000km를 질주해야 했다.”면서 “미리미리 물과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폴란드였다. 그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국경을 넘은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피난처를 만났다. 따뜻한 여정에도 그는 이곳에서 3일간 피난민들을 도우면서 자원봉사를 했다.

실리오는 2018년 러시아월드컵 때도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러시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다. 실리오는 “자전거여행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면서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고, 텐트에서 자고 하다 보면 정말 돈을 쓸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북중미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실리오는 북중미월드컵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현장에서 즐길 예정이다. 그는 “최초로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지로만 북중미까지 달려가면 된다.”고 말했다.

벌거벗고 변기 위에 ... 조롱 받는 푸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작품’들이 전세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 런던 리젠트 공원에는 새빨간 모습의 푸틴 조형물이 등장했다. 이 조형물은 온몸 새빨간 모습으로 특히 푸틴 대통령이 작은 탱크 위에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조형물은 프랑스의 거리 아티스트 제임스 콜로미나의 작품으로 그는 파리, 바르셀로나, 뉴욕에도 같은 조형물을 설치했다. 콜로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 대통령의 유치하지만 위험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조형물을 세계 각 도시에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 런던 리젠트 공원에 설치된 푸틴 대통령 조형물(왼쪽)과 체코 수도 프라하에 벌거벗은 채로 참금 변기에 앉아있는 대형 조형물.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0월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 벌거벗은 채로 변기에 앉아있는 대형 조형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조형물은 푸틴 대통령이 벌거벗은 채로 ‘Z’ 문양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한 손에는 변기솔을 든 채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름도 ‘벌거벗은 살인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굴욕적인 칠순 선물을 받았다고 평했다.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 뱅크시도 벽화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브 인근 보로디얀카 마을의 벽에 그려진 이 벽화는 한 소년이 한 남성을 유도 기술인 앞치기로 넘기는데 이 남성은 유도 유단자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